

교원그룹과 함께하는 기적의도서관 문해력 증진 프로그램

# 복적복적

## 사례집



주최

책읽는사회문화재단

기적의도서관전국협의회

후원

KYO  
WON 교원

# 목 차

## I. 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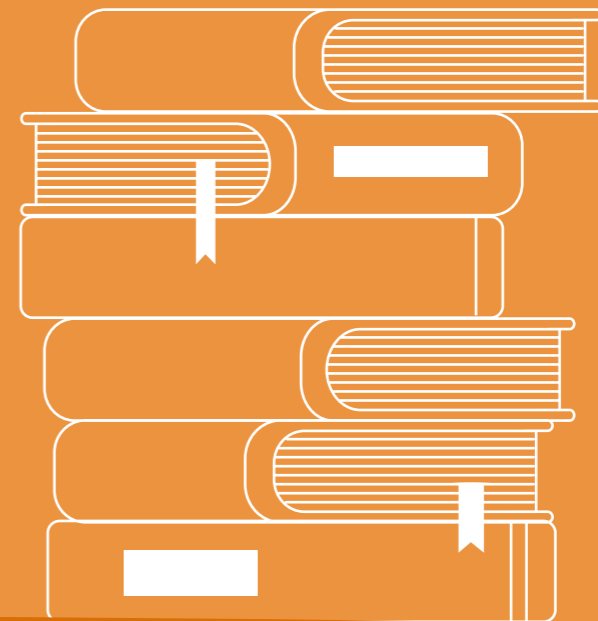
1. 사업의 필요성	6
2. 사업 목적	7
3. 사업 개요	8
4. 사업 방법	8
5. 홍보 방안	10
6. 사업 일정	11

## II. 관별 사업 내용

1. 구로기적의도서관	14
2. 김해기적의도서관	20
3. 도봉기적의도서관	26
4. 부평기적의도서관	31
5. 여주기적의도서관	37
6. 진해기적의도서관	43
7. 청주기적의도서관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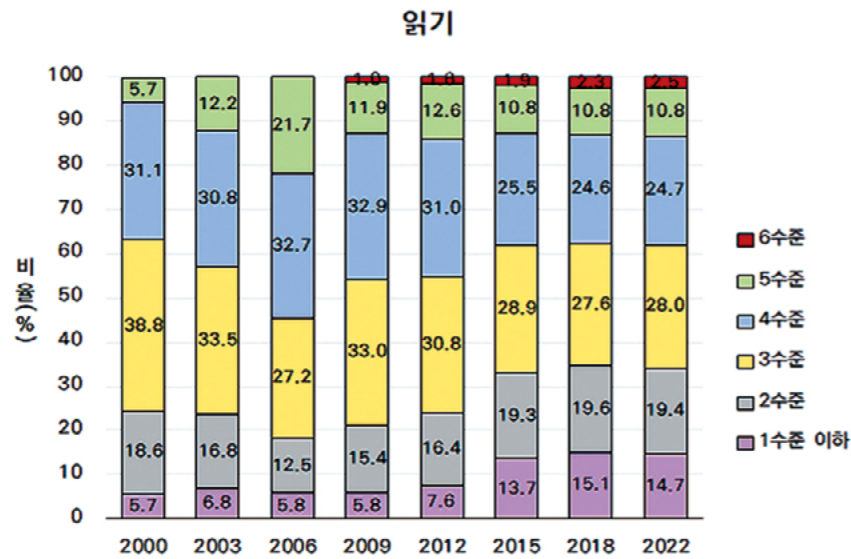
# I. 사업 개요



# 1. 사업의 필요성

## ■ 지속적인 어린이·청소년 문해력 하락

- PISA(국제학업성취도평가) 2022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 중 읽기 영역 '1수준'의 비율은 14.7%  
 ※ 읽기 수준이 낮을수록 읽기를 어려워함을 뜻함
- PISA 2000에서 PISA 2012까지 8% 미만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읽기를 어려워하는 학생이 2배 이상 증가



- 2023년 교육부가 실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국어 영역에서 '보통' 학력 이상의 비율  
 ▷ 중학교 3학년 : 2017년 84.9%에서 2023년 61.2%로 감소  
 ▷ 고등학교 2학년 : 2017년 75.1%에서 2023년 52.1%로 감소

## ■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문해력 및 학력 격차 심화

- 2021년 방영된 EBS의 <당신의 문해력> 프로그램에서 초등학교 1학년 93명을 대상으로 초기 문해력 진단 평가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19 기간 중 비대면 수업을 받은 10명 중 2명 이상 '기초 미달' 수준

## ■ 문해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매체보다는 종이책이 효과적

- 교육강국들은 디지털 교육에서 아날로그 교육으로 회귀 중

국 가	내 용
스웨덴	- 유치원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 의무화 방침 폐기 - 6세 미만에 대한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 중단 예정
프랑스	- 2018년부터 15세 이하 학생은 학교에 스마트폰 휴대 금지
이탈리아	- 2022년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네덜란드	- 2024년부터 교실에서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캐나다 온타리오주	- 초3부터 '필기체 쓰기' 수업 실시

## ■ 문해력은 학업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상과 일생에 영향을 미침

- 읽기 능력은 모든 학습의 기초로, 문해력 부족은 다른 학습 과목에서도 어려움을 초래
- 디지털 매체가 아닌 종이책을 읽는 습관이 문해력 향상으로 이어짐
- 문해력 향상으로 어린이의 자신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자아 개념 형성
-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통해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함
- 문해력 향상은 성인이 되어 더 나은 직업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안정에 기여

# 2. 사업 목적

-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가 책과 즐겁게 만나는 경험을 통해 책읽기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도움
- 체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 어린이의 문해력을 증진함

### 3. 사업 개요

- **사업명** 교원그룹과 함께하는 기적의도서관 문해력 증진 프로그램 <복적복적>
- **대상**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초등학생
- **사업기간** 2024. 8. ~ 12.
- **수행기관** 전국의 기적의도서관 7개관 (구로기적의도서관 / 김해기적의도서관 / 도봉기적의도서관 / 부평기적의도서관 / 여주기적의도서관 / 진해기적의도서관 / 청주기적의도서관)
- **시행횟수** 관별 10회 내외
- **주최** 책임는사회문화재단, 기적의도서관전국협의회
- **후원** 교원그룹
- **사업 수행 체계**

교원그룹	책임는사회문화재단 기적의도서관전국협의회	각 기적의도서관
기금 지원	- 전체 사업 계획 수립 - 사업 수행기관 모집 - 기금 관리 및 집행	- 세부 활동 계획 수립 - 참가 아동 모집 - 프로그램 운영

### 4. 사업 방법

#### 1) 사업 수행기관 모집 및 선정

- **수행기관** 전국의 기적의도서관 18개관 중 7개관을 공모로 선정
- **사업계획서 제출**

#### ■ 수행기관 선정방식

- 계획의 필요성, 실현가능성, 예산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선정
- 지역 및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우선 선정

#### 2) 사업 수행기관 오리엔테이션

- **대상** 사업 수행기관 담당자
- **일시** 2024. 9. 5.(목) 14~16시
- **장소** 온라인(Zoom)
- **내용**
  - 사업의 취지 및 진행 방식 설명
  - 관별 사업 계획 공유

#### 3) 참여자 모집

- **대상**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초등학생(관별 10명 내외)

#### 4) 사전 진단 및 평가

- **프로그램 시작 전 참여 아동의 읽기 능력 및 읽기에 대한 인식 평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읽기 태도 검사', EBS '문해력 진단 테스트' 등 활용

#### 5) 프로그램 진행

- **활동** : 10주 내외로 구성
  - 책을 읽어주거나 함께 읽기
  - 창작, 체험 등의 활동을 통해 책에 대한 친밀감 형성
- **다양한 읽기 자료 제공**
  - 그림책, 동화책 등 재미있는 읽기 자료 제공 (참여자에게 주제도서 선물 가능)
  - 경우에 따라 멀티미디어(영상, 오디오북 등) 활용

## 6) 최종 진단 및 평가

■ **최종 평가** 프로그램 종료 시 최종 평가를 통해 성과 분석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읽기 태도 검사', EBS '문해력 진단 테스트' 등 활용

## 7) 사업 평가 및 결과공유회

■ **대상** 사업 수행기관 담당자 및 참여 강사

■ **일시** 2024. 12. 18.(수) 14~15시

■ **장소** 온라인

■ **내용**

- 관별 사업 수행 결과 공유
- 최종 평가 회의

## 8) 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 **관별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류 제출(수행기관→책임는사회)**

- 제출서류 : 결과보고서, 통장거래내역, 영수증 원본 등
- 제출기한 : 2024. 12. 13.(금)까지

■ **사업 전체 홍보**

- 보도자료 배포 및 SNS 게재(책임는사회)

■ **참여기관별 홍보**

- 기관 홈페이지 및 SNS 등에 게재
- ※ 홍보물(현수막, 웹자보, 보도자료 등)에 주최, 후원 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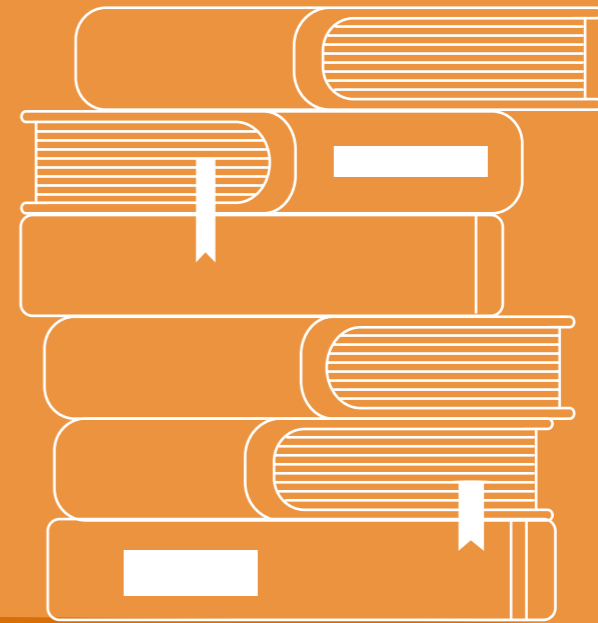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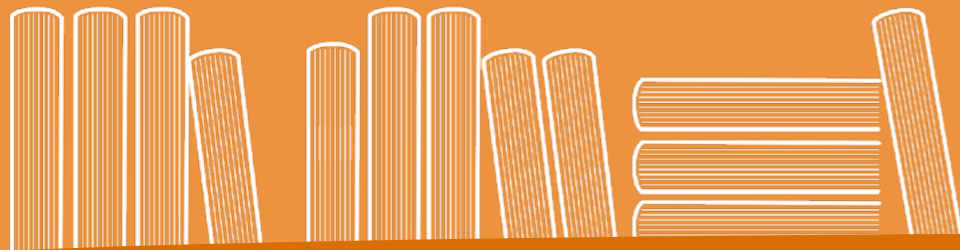


## 6. 사업 일정

일정	내용	비고
2024. 8. 21. (수)	참여기관 모집 및 관별 사업계획서 제출 완료	
2024. 8. 26. (월)	참여기관 선정 결과 발표	
2024. 9. 5. (목)	온라인 오리엔테이션	참여기관 담당자
2024. 9. ~ 11.	관별 프로그램 운영	
2024. 12. 13. (금)	관별 결과보고서 제출 및 정산 완료	기적의도서관 → 책임는사회
2024. 12. 18. (수)	최종 평가회의 및 결과공유회	참여기관 담당자 및 강사



## II. 관별 사업 내용



# 1. 구로기적의도서관



- **사업명** 2024 구로기적의도서관 어린이 북적북적 책교실
- **참여자 학년 및 인원** 초등 2~4학년 (총 11명)
- **참여자 모집 방법** • 구로구도서관통합홈페이지 “지혜의 등대” 회원 선착순 모집
- **사업 내용**

회차	주제도서	활동 내용
1	물동이 도서관 	도서관 소개 및 이용 교육 사전 문해력 평가
2	어서오세요! ㄱㅇㄷ뷔페 	자음에서 확장하는 그림책 문해력 - 이미지 사고력으로 함께하는 그림책 한 장면 보기 - (VTS 질문법 이미지 사고력 글쓰기) - 내가 만드는 자음 - 자음에서 확장하는 어휘 표현하기 - 나만 자음 책
3	헐헐 간다 	이중 모음 그림책 문해력 - 이미지 사고력으로 함께하는 그림책 한 장면 보기 - VTS 질문법 : 이미지 사고력 글쓰기 - 이중모음 알기 - 이중모음의 글자를 맞춰라 - 몸으로 경험하는 의성어 의태어 - 번갈아 말놀이
4	팔이 영감과 우르르 산토끼 	어휘가 자라는 그림책 문해력 - 이미지 사고력으로 함께하는 그림책 한 장면 보기 - (VTS 질문법 이미지 사고력 글쓰기) - 시간의 흐름대로 사건 순서 배열하기 - 사건에 알맞은 이야기 요약하는 마법 책 - 짧은 이야기 낭독 극 표현하기

회차	주제도서	활동 내용
5	파리의 휴가 	추론을 돕는 그림책 문해력 - 이미지 사고력으로 함께하는 그림책 한 장면 보기 - (VTS 질문법 이미지 사고력 글쓰기) - 파리의 휴가지 예상하는 글쓰기 - 이야기를 듣고 추론하기 - 맞춤법 파리채 놀이 - 땅따먹기 문장 만들기
6	<특강> 고전 『논어』와 함께하는 RAP 낭송	어린이 논어 랩 낭송 - 고전 문학 ‘논어’를 현대식의 ‘랩’으로 낭송해보는 기획 프로그램
7	딩동거미와 개미 	이야기 구성을 돕는 그림책 문해력 - 이미지 사고력으로 함께하는 그림책 한 장면 보기 - (VTS 질문법 이미지 사고력 글쓰기) - 공통점과 차이점 알기 - 인사배 주사위 놀이(인물, 사건, 배경) - 나만의 뒷 상상 이야기 쓰기
8	임금님 귀는 토끼 귀 	듣기를 향상 시키는 읽기 그림책 문해력 - 이미지 사고력으로 함께하는 그림책 한 장면 보기 - (VTS 질문법 이미지 사고력 글쓰기) - 경청 게임 - 행동 놀이 -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적 결합 표현
9	후끈후끈 고추장 운동회 	문장을 경험하는 그림책 문해력 - 이미지 사고력으로 함께하는 그림책 한 장면 보기 - (VTS 질문법 이미지 사고력 글쓰기) - 삼행시 짓기 - 중심문장과 단어 카드로 나만의 문장 만들기 - 비뺌법으로 함께하는 글쓰기
10	똥벼락 	생각이 자라는 그림책 문해력 - 이미지 사고력으로 함께하는 그림책 한 장면 보기 - (VTS 질문법 이미지 사고력 글쓰기) - 문맥의 표현 짐작하기 - 하고 싶은 말 다섯 글자 표현하기 - 어휘 넓히기



## ■ 평가

### 잘된 점

- 참여 어린이는 물론 참여 어린이의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매우 컸으며, 회차를 거듭할수록 어린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글쓰기에서도 성장한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음
- 마지막 차시에서는 내년에 또 같은 프로그램 진행을 원하는 이용자 요구가 있었음

### 아쉬운 점

- 이용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고, 3회차 이후부터 프로그램 추가 등록된 초등 2학년 참여 어린이들의 문해력 평가가 이뤄지지 못해 다소 아쉬움

### 건의사항

- 방학 시즌에 진행 될 수 있도록 고려 바람



## ■ 강사 후기

### 문해력을 키우는 어린이 북적북적 책교실

\_박지선

문해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많이 읽고 생각하고 말하고 써야 할 것이다. 읽기의 어려움을 지닌 아이들의 문해력 성장을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한 것은 그림책이었다. 수준을 고려하여 흥미를 느끼는 책을 선정하여 읽기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함께 읽기를 하면서 책에 흥미와 재미를 느껴서 같이 떠올리고 생각해 보는 것이었다. 그림책의 수준을 3~4학년이 읽을 수 있는 책보다는 조금 낮추어 선정하였다. 조금 쉬운 수준의 책은 아이들에게 읽기 동기에 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수업의 목표는 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으로 정했다. 읽기뿐 아니라 말하기, 듣기, 쓰기까지 그림책의 그림과 이야기로 전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나선형으로 1차시부터 8차시까지 글밥의 수준도 고려하였다.

사업 후 아이들의 반응과 이야기를 살펴본 결과, 수준별로 선정된 그림책이 적절하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이들에게 선물한 그림책을 집에 가서 다시 읽으니 이야기를 떠올리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책이 재미없었는데 재미있어졌다는 친구, 원래 책이 재미있었는데 더 재미있었다는 친구들이 많았다. 아이들의 반응을 보니 처음 목표로 한 방향대로 잘 진행된 것 같다.

1차시부터 8차시까지 매번 처음에 도입한 VTS 방법(Visual Thinking Strategies)은 시각적인 사고를 활용하여 참여자들의 관찰, 분석, 해석,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능력을 향상하는 교육 방법이다. VTS 방법은 주로 미술감상교육이나 시각적인 자료를 활용한 교육에서 사용하는데, 이것을 그림책에 적용하여 아이들의 시각적 문해력 성장을 유도하였다. 이 방법은 인지 심리학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림책을 통한 인지적 관심과 성장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했다.

8차시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점차 이미지 사고력과 표현력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야기에 관심이 생기고, 이야기를 떠올려서 표현하는 것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1차시에는 말도 없고 표현도 없던 친구들이 8차시를 마무리하는 시기에는 표정이 바뀌고 책에 대한 몰입도와 반응이 적극적으로 변했다. 8차시 이후에도 더 하고 싶다는 아이들이 많았다. 인지적인 동기 유발에 자극을 줬기 때문이다. 문해력은 이렇게 인지적인 부분과 연결이 되어서 적절한 때 오랜 시간을 들여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8차시 동안 꾸준히 90분 그림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극을 받은 아이들은 단기간이었지만 여러 영역에서 성장하였다.

## 문해력 교실에서 만난 새로운

임소담(구로기적의도서관 사서)

갑작스럽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문해력” 프로그램을 맡게 되었다. 가뜰이나 할 일도 많은데 10회차나 진행해야 한다니 부담감이 밀려왔다. 기획안을 읽으며 곰곰이 생각해 보니 회차에 대한 부담감만이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사서라면서 정보를 얼마나 이해하고 올바르게 해석하며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고, 스스로의 문해력에 대한 질책과 평가가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수 있을까로 연결되었다. 이런 고민들이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뭉쳐져 부담감을 더 크게 만들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운영자의 마음도 이려한데 하물며 책 읽어라, 국어 공부해라, 시 교과서로 학습한다 등 문해력에 대한 부담감을 아이들이나 학부모도 더 느끼고 있을 것 같아 조금함도 들었다. 나의 조금함과 부담감이 아이들에게 닿지 않고 어린이들이 재밌게 참여할 수 있는 문해력 프로그램은 뭐가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적합한 강사님을 섭외하면서 VTS 기법을 처음 알게 되었다. 글 없는 그림책도 요즘엔 흔하고 스스로 그림을 읽어가며 이야기를 상상하는 읽기 방식은 알았지만, 글 있는 그림책을 그림으로 먼저보면서 생각을 확장한다니 참여할 어린이들에게도 나에게도 ‘이거 좀 재밌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다. 찾아보니 Visual Thinking Strategies 기법은 주로 미술 작품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사용되지만 책읽기와 결합할 경우 독서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 방법을 통해 진행된 “어린이 북적북적 책교실”에서 어린이들이 얼마나 확장된 사고를 하고 변화되는지를 몸소 경험해 볼 수 있었다.

도서관에서 어린이 프로그램 운영하다 보면 장난스러운 아이들이 한두 명쯤은 항상 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장난기 있는 친구는 없고 다들 내향적이고 조용한 아이들어서 과연 아이들이 도서관 오기 싫다고 하지 않고 끝까지 프로그램에 잘 참여할 수 있을까? 싶은 우려가 들었다. 왜냐하면 묻는 것에 대답하는 것조차 쑥스러워하고, 꼭 집어 시켜도 자신있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을 정말 두려워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의 이런 우려와는 달리 회차를 거듭할수록 아이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게 점점 느껴졌다. 프로그램 중반 뒤늦게 참여하게 된 2학년 어린이의 학부모께서 책을 잘 읽지 않던 아이였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로 책을 스스로 찾아 읽으려 한다며 너무 기뻐했다.

이런 반가운 이야기도 들리면서 직접 아이들의 변화를 느끼고 보기 시작한 건 한 4회차 정도였다. 발표하기 싫어서 가만히 있던 아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강사님이 묻기도 전에 화면을 보고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고자 손을 들고 있었다. 빨리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뽀은 팔 위로 손가락이 휘날리기도 했다. 자신의 이야기나 생각을 발표하는 것에 있어서 자신감이 붙은 모습이었다. 자신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인정받는 아이들이 신나서 더 이야기하고자 하는 모습을, 서툰 글쓰기도 조금씩 표현력에 살이 붙고 글이 더 완성도 있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매번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마다 잘 듣는 것부터가 문해력의 시작이라고 강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에 크게 동의할 수 있었다. 참여 아이들이 예전에 읽었던 책이여도 강사님이 들려주는 책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다른 아이들의 발표도 잘 듣기 시작했다. 친구가 낸 의견에 공감하거나 덧붙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도 했다.

처음 기획 당시 10회차의 부담감은 사라졌고 어린이들의 세계는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그들의 흡수력과 성장력의 어마어마한 힘에 압도되어 내 마음 깊숙이 울림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발표하기를 두려워하거나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어린이의 모습들을 보면서 문해력에 대한 스스로의 반성적 성찰이 완벽을 추구하면서 비롯된 압박은 아니었을까 하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어린이들은 실수를 통해 더 나은 자신을 발견하고, 새롭게 알게 됨을 기억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의 성장은 단지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나 역시 그들과 함께 성장하는 여정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었고, 어린이 문해력 교실을 통해 아이들이 성장하고 변화한 만큼 담당자인 나에게도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으며, 나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10회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소중한 과정이 너무 빛나는 시간들이었으며 다른 차원의 경험을 해본 느낌이다.

도서관에서 함께하는 문해력 교실은 이제 끝이 났다. 하지만 어린이들에게는 이번 프로그램 참여가 단순히 읽기와 쓰기의 학습적 성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 확신이 든다. 어린이들은 앞으로 도서관에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만나 성장할 것이다. 그 이야기들을 읽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표현할 것이다. 아이들이 앞으로 더 튼튼한 문해력을 키워 세상과 더 잘 소통하기를, 자신의 삶을 더 다채롭게 채워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다음에도 이런 프로그램으로 많은 어린이들이 도서관과 책 읽기에 대한 거부감을 떨쳐버릴 기회가 많기를 기대한다.






## 2. 김해기적의도서관



- **사업명**                   우리말 일기예보
- **참여자 학년 및 인원** 초등 2~4학년 15명
- **참여자 모집 방법**   • 지역아동센터 및 가족센터에 홍보하여 참여자 우선 모집  
                                 • 김해시공공예약포털을 활용한 온라인 접수

### ■ 사업 내용

회차	주제도서	활동 내용
1	<p>새로 쓰는 비슷한 말 꾸러미 사전</p>  <p>뽀족이, 안뽀족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 기상캐스터 OO을 소개합니다</li> <li>• 사전 진단 및 평가</li> <li>• 친해지기(나 사용 설명서 글쓰기)</li> </ul>
2	<p>뭐든 될 수 있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 봄</li> <li>• 오늘의 비슷한 말 : 햇벌, 햇살, 햇발, 햇귀 등 - 비슷한 말을 몸으로 표현하기 - 비슷한 말로 일기예보 대본 써보기</li> </ul>
3	<p>나는 돌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 봄</li> <li>• 오늘의 비슷한 말 : 따습다, 따사롭다, 따스하다 등 - 비슷한 말을 넣어 문장 완성하기</li> </ul>

회차	주제도서	활동 내용
4	<p>여름이 온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 여름</li> <li>• 오늘의 비슷한 말 : 불벌, 땀벌, 여름다, 영글다 등 - 비슷한 말을 활용하여 음악을 색채로 표현하기</li> </ul>
5	<p>내가 잘하는 건 뭘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 여름</li> <li>• 오늘의 비슷한 말 : 가랑비, 보슬비, 실비 - 오늘의 비슷한 말로 친구의 장점 써주기 - 나만의 장점 포스트잇 사위</li> </ul>
6	<p>하이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 여름</li> <li>• 오늘의 비슷한 말 : 들, 들판, 들넉, 벌 등 - 비슷한 말을 넣어 주제도서의 그림 속 대화, 소리 상상해 글짓기</li> </ul>
7	<p>뭐든 될 수 있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 가을</li> <li>• 오늘의 말 : 실바람, 남실바람, 산들바람 등 - 오늘의 말을 넣어 일기예보 대본 써보기</li> </ul>
8	<p>나 진짜 궁금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 가을</li> <li>• 오늘의 비슷한 말 : 맑다, 깨끗하다, 정갈하다 등 - 비슷한 말뜻을 듣고 떠오르는 '영감 단어집' 만들기</li> </ul>
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 일기예보 준비</li> <li>• 1~8회 차 비슷한 말로 일기예보 만들기 - 각 조별로 역할 나뉘, 일기예보 대본, 필요한 무대 장치 등 만들기</li> </ul>
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 일기예보 발표</li> <li>• 일기예보 조별로 발표하기</li> <li>• 최종 진단 및 평가</li> </ul>

## ■ 평가

### 잘된 점

- 계절과 관련된 말들을 배우면서 다양한 단어들을 접하며 어휘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음.
- 배운 말들을 활용하여 일기예보를 작성하면서 단어의 활용법까지 익힐 수 있었음.
- 수업에 사용한 주제도서를 선물로 제공하여 가정에서의 책 읽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었음.

### 아쉬운 점

- 10회 프로그램 진행으로 아이들의 문해력 향상 정도를 평가하기에는 기간이 짧았음.



## ■ 강사 후기

### 비슷한 말로 완성하는 특별한 일기예보

\_김예린

#### 몸으로 익히는 언어의 감각

"아이들이 '가랑비', '보슬비', '실비'의 차이를 알 수 있을까?"

이 작은 호기심이 수업의 시작이었습니다. 호기심은 2016년 출판된 <새로 쓰는 비슷한 말 꾸러미 사전>에서 비롯됐습니다. 사전은 비슷하지만 미묘하게 다른 우리말 뜻을 친절히 알려주는 책입니다. 말을 배울 때 우리는 부모의 입 모양과 말을 따라 하고, 뜻을 익힙니다. 단순히 글을 쓰고 지우면서 외우는 게 아니라 오감으로 말을 익힙니다. 우리가 말을 익히는 건 자연스럽게 즐겁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수업 계획을 세울 때 원칙은 딱 하나였습니다.

'어린이가 즐거운 수업을 하자.'

수업 구성은 계절과 관련된 우리말 어휘를 그림책과 함께 익히고, 이를 활용해 창의적으로 협동적인 예술 활동을 만들었습니다. 수업을 봄, 여름, 가을로 나누고, 어린이들은 총 10차시 동안 배운 계절별 비슷한 말을 바탕으로 일기예보 대본을 완성했습니다. 조별로 일기예보에 필요한 소품을 만들고, 대본을 가지고 일기예보 발표까지 이어졌습니다.

첫 시간에는 아이들 간 친밀감을 형성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계절과 관련된 낱말을 떠올리고 각자 마음에 드는 단어로 '기상캐스터 이름'을 지었죠. '모기', '여름', '단풍' 등 수업 시간 내내 아이들은 각자가 정한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림책을 읽고 '나 사용 설명서'를 작성하며 낯선 친구들을 익히고, 자기 자신을 탐구하고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격적인 수업은 두 번째 시간부터 이뤄졌습니다. 초성 퀴즈를 통해 계절별 비슷한 말의 뜻을 유추하며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어휘력을 키웠습니다. '햇발', '햇귀' 등 낯선 비슷한 말을 몸으로 표현하거나, 새로운 비슷한 말을 넣어 글을 써보는 활동은 아이들에게 말을 가지고 노는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온몸으로 말해요' 퀴즈 시간에는 아이들이 서로 무대로 나와 퀴즈를 내려고, 경쟁적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단어의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고, 그 차이를 몸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길러졌습니다.

수업마다 배운 비슷한 말은 음악, 미술, 글쓰기 등 다양한 예술 활동으로 표현했습니다. 아이들의 창의력이 돋보이는 순간들이었죠. 그림책 『여름이 온다』(이수지)는 청각을 시각으로 표현하는 완벽한 마중물이 돼 주었습니다. '불벌', '땡벌', '후끈후끈하다' 같은 언어를 아이들이 색채로 표현하고, 감각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기상청은 바람 세기에 따라 '풍력계급표'를 우리말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아

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죠. 바람이 없는 '고요'부터 산더미 같은 파도를 일으키는 '씩씩바람'에 이르기까지, 바람의 우리말 이름을 단순히 외지 않고 몸으로 바람의 세기를 표현했습니다. 아이들은 가만히 서 있거나, 팔을 연신 휘젓고, 무대 위를 격하게 뛰어다니며 자신만의 바람을 만들었습니다. 몸으로 익힌 바람의 단어는 일기예보 속에 넣어 자신만의 일기예보로 완성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적극적으로 자신만의 일기예보를 만들어 갔습니다.

### 창의력이 꽃 핀 '일기예보' 만들기



초성 퀴즈를 맞히고, 온몸으로 단어 퀴즈를 풀고 난 뒤에는, 단어 뜻을 직접 써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책상 위에 사전을 펴고, 아이들이 연필로 단어 뜻을 써 내려가는 순간이 참 예뻐 보였습니다. 입을 삐죽 내밀며 집중하는 얼굴에는 진지함이 묻어났습니다. 수업 시간뿐 아니라, 쉬는 시간에도 아이들은 사전을 펼쳐 들고 친구들과 퀴즈를 내며 단어 놀이를 즐겼습니다. 강의 우리말 '가람', 장마의 옛말 '오란비'를 배울 때는 '그런 단어도 있었어요?' 하며 놀라기도 했습니다.

수업마다 몰입과 감탄이 일어났고, 아이들은 단순히 새로운 단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언어의 다양성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뉴스에 나오는 일기예보처럼 만들어 보자."

'햇살', '들녘', '남실바람', '꽃망울' 등 수업 시간 동안 비슷한 말은 충분히 익혔습니다. 익힌 비슷한 말을 활용할 차례입니다. 수업 시간마다 일기예보를 써보는 시간을 가졌기에, 아이들이 일기예보를 쓰는 건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9,10회 차 수업은 배웠던 비슷한 말을 다시 보고, 직접 일기예보 발표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종이상자, 골판지, 색칠도구, 색테이프 등 만들기 재료를 주었습니다. 조별로 마이크, 텔레비전, 날씨판 등 개성 넘치는 소품을 만들고, 경상도, 수도권, 강원도 등 지역별 대본을 나눠 썼습니다. 앵커, 기상캐스터 등 역할을 나누고 대본 작성, 무대 장치를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왜 이렇게 하는데?',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며 의견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점차 서로 생각을 존중하고 도우며 하나의 일기예보를 만들어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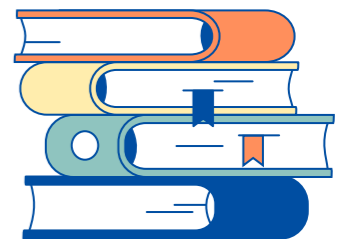
아이들은 씩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이 쓴 대본을 또박또박 읽으며 조별 발표를 끝냈습니다. 발표 후 얼굴에는 친구들과 힘을 합쳐, 일기예보를 완성했다는 뿌듯함과 해냈다는 성취감이 묻어났습니다. 물론, 모든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활동이 많아 시간

이 부족했던 경우도 있었고, 조별 활동에 소극적인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아이들의 성향을 더 세심하게 고려한 역할 분담과 개별 활동 기회를 줌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다음에도 이런 수업해요!"

마지막 수업 날, 아이들이 마지막 아쉬움을 토로하며 이런 말을 건넬 때 강사의 마음에는 뿌듯함과 보람으로 가득 찹니다. 아이를 수업에 참여시켰던 학부모는 "다음 수업은 언제 하나?"고 질문했습니다. 학부모는 '재미있게 우리말을 배우는 아이의 모습이 예뻐 보였다'며 웃었습니다. 비슷한 말로 완성하는 특별한 일기예보는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수업을 듣는 아이들, 수업을 보낸 학부모, 수업의 향해사가 된 강사까지 모두가 기쁘게 수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책 읽기가 문해력의 단단한 토대가 된다면, 비슷한 우리말을 온몸으로 배우는 일은 토대 위에 벽돌을 한 장씩 쌓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몰입한 줄도 모른 채, 우리말을 배우는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강사는 벽돌 쌓는 방법만 제시했을 뿐, 아이들 스스로 그 벽돌을 쌓아 올리며 자연스럽게 배움이 이루어졌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우리말을 즐겁게 배우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문해력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회에 '책읽는사회 문화재단'이 문해력 향상을 위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심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 3. 도봉기적의도서관



- **사업명**                    교원그룹과 함께하는 기적의도서관 문해력 증진 프로그램 <북적북적>
- **참여자 학년 및 인원** 1~4학년 10명(다문화가정 우선 접수)
- **참여자 모집 방법**    • 도봉구통합도서관 홈페이지 접수, 도봉구가족센터 포스터 접수(QR)
- **사업 내용**

회차	주제도서	활동 내용
1	<p>샘과 데이브가 땅을 팠어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 소개시간</li> <li>• 사전 진단 평가</li> <li>• 읽어 보자! 아슬아슬한 이야기 (샘과 데이브가 땅을 팠어요 / 맥 바넷)</li> <li>• 이야기 속 문장 퀴즈</li> <li>• 작가님이 추천하는 책 이야기</li> </ul>
2	<p>검피 아저씨의 뱃놀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숙제 검사</li> <li>• 읽어 보자! 조마조마한 이야기 (검피 아저씨의 뱃놀이 / 존 버닝햄)</li> <li>• 이야기 속 문장 퀴즈</li> <li>• 작가님이 추천하는 책 이야기</li> </ul>
3	<p>참을성 없는 애벌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숙제 검사</li> <li>• 읽어 보자! 속 터지는 이야기 (참을성 없는 애벌레 / 로스 뷰랙)</li> <li>• 이야기 속 문장 퀴즈</li> <li>• 작가님이 추천하는 책 이야기</li> </ul>

회차	주제도서	활동 내용
4	<p>나도 편식할거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숙제 검사</li> <li>• 읽어 보자! 꼬르륵 꼬르륵 이야기 (나도 편식할거야 / 유은실)</li> <li>• 이야기 속 문장 퀴즈</li> <li>• 작가님이 추천하는 책 이야기</li> </ul>
5	<p>친구의 전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숙제 검사</li> <li>• 읽어 보자!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친구의 전설 / 이지은)</li> <li>• 이야기 속 문장 퀴즈</li> <li>• 작가님이 추천하는 책 이야기</li> </ul>
6	<p>리디아의 정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숙제 검사</li> <li>• 읽어 보자! 눈물이 핑 도는 이야기 (리디아의 정원 / 사라 스투어트)</li> <li>• 이야기 속 문장 퀴즈</li> <li>• 작가님이 추천하는 책 이야기</li> </ul>
7	<p>돌맹이 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숙제 검사</li> <li>• 읽어 보자! 따라 하고 싶은 이야기 (돌맹이 국 / 존 J. 무스)</li> <li>• 이야기 속 문장 퀴즈</li> <li>• 작가님이 추천하는 책 이야기</li> </ul>
8	<p>초록 고양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숙제 검사</li> <li>• 읽어 보자! 눈이 휘둥그레지는 이야기 (초록 고양이 / 위기철)</li> <li>• 이야기 속 문장 퀴즈</li> <li>• 마무리 평가 및 수료식</li> </ul>

## ■ 평가

### 잘된 점

- 매주 수요일 책 읽기와 문장 및 단어 퀴즈, 자기 생각 말하기 등 체계적인 수업을 통해 어린이들의 문해력 향상.
- 어린이들이 직접 책을 읽어주는 숙제를 통해 가족, 친구들에게 배운 내용을 공유하면서 자신감을 얻고 문해력뿐만 아니라 표현력도 같이 향상.
- 주제 도서 외에도 추천 도서를 읽고 감상을 나누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어린이들이 독서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자연스럽게 독서 습관을 형성.
- 문해력 평가검사를 통해 어린이들이 전반적으로 문해력 기초학력에 도달했으며 일부 어린이들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음.

### 아쉬운 점

- 문해력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이라는 명목하에 연령대를 넓혀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초등 3~4학년 어린이들에게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한 점
- 어린이들의 수준을 초기 단계에서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진행하여 문해력 향상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들이 있었던 점



## ■ 담당 사서 후기

### 도서관과 함께한 문해력 여정 : 어린이들의 성장을 이끈 프로그램

\_이혜찬(도봉기적의도서관 사서)

도봉기적의도서관은 '교원그룹과 함께하는 기적의도서관 문해력 증진 프로그램 북적북적'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책임은사회문화재단과 기적의도서관전국협의회 주최, 교원그룹 후원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문해력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은 2024년 10월 2일 수요일부터 11월 27일 수요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총 8회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에게 독서 능력과 문해력 향상을 목표로 하여 동화 작가 선생님이 책을 읽어주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업에서는 책 속 문장과 단어를 배우고 이를 통해 독해력을 기르는 활동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수업에서 다룬 책을 선물로 주고 가족이나 친구, 반려동물, 인형 등에게 책을 읽어주는 숙제를 주어 실제로 배운 내용을 활용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어린이들은 수업을 통해 책에서 배운 문장과 단어를 바탕으로 독해력을 기르고 도서를 직접 읽으면서 문해력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독서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문해력뿐만 아니라 독서 습관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었습니다.

문해력 증진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의 독해력과 문해력 향상을 목표로, 매주 진행된 수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의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어린이들의 문해력 증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공한 문해력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활용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의 첫 수업과 마지막 수업에 진단 평가를 실시하여 어린이들의 문해력 향상 정도를 평가하였습니다.

각 수업은 책 읽기와 문장 및 단어 퀴즈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면 선생님이 책을 읽어주고 읽은 후에는 주요 문장과 낱단어를 설명하며 그 의미를 풀어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은 문장 구조와 새로운 단어를 익혔고 독해력 향상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책을 읽고 나서 어린이들은 자유롭게 감상을 나누며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업 외에도 어린이들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숙제를 받았습니다. 이 숙제는 어린이들이 책에서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는 과정이 되었고 이 과정을 통해 어린이들은 읽기 능력뿐만 아니라 말하기와 표현력도 함께 향상되었습니다. 반복적이고 참여적인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이 독서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문해력을 자연스럽게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 어린이들의 변화

프로그램 초반, 어린이들은 책을 읽고 문장을 분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발표에 참여하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학습과 책 읽어주기 숙제를 통해 점차 자신감을 얻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숙제를 통해 가족에게 책을 읽어주는 경험은 어린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을 읽어주는 동안 자신이 배운 내용을 자연스럽게 말하고, 문장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최종 평가 결과에서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총 6명이 실시한 최종 평가에서 6명 중 5명이 기초학력에 도달했으며, 그중 2명은 처음에는 문해력 기초학력 미도달 상태였으나, 프로그램을 통해 문해력 능력이 증진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들은 전반적으로 문해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글을 읽고 이해하는 속도와 정확성도 개선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은 점차 독서에 대한 자신감을 쌓아가며 읽기와 이해력, 표현 능력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프로그램이 어린이들의 문해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어린이들에게 단순히 책을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책을 읽고 나서 책에 나오는 문장과 단어를 이해하는 과정이 어린이들의 문해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책을 읽어주는 경험을 통해 어린이들은 자신감을 얻고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는 어린이들에게 독서의 의미를 이해하는 경험을 제공하며 문해력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의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문해력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이라는 명목하에 연령대를 넓혀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초등 3~4학년 어린이들에게는 전문적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추후에는 프로그램을 연령대별로 세분화하여 각 연령대에 적합한 내용과 방법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기획해야겠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들의 변화는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체계적인 수업 방식과 반복적인 독서 활동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들에게 독서를 단순한 과제가 아닌 즐겁고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하여 문해력뿐만 아니라 창의적 사고와 표현 능력까지 함께 키울 수 있는 수업을 설계하여, 어린이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4. 부평기적의도서관



■ 사업명 2024년 부평기적의도서관 교원그룹과 함께하는 문해력 증진 지원사업

■ 참여자 학년 및 인원 초등학교 4~5학년(2013~2014년생), 10명

■ 참여자 모집 방법 • 관내 게시판 홍보물 게시  
• 부평기적의도서관 홈페이지 및 SNS(카카오톡)발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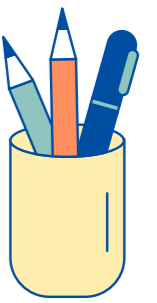
### ■ 사업 내용

회차	주제도서	활동 내용
1	<p>다다다 다른별 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리엔테이션 및 사전 진단 평가</li> <li>• 첫 시간 만남 자기소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만의 별 소개하는 이름표 만들기</li> <li>- 자기 특징을 위주로 자기소개하기</li> <li>- 친구의 소개를 경청하며 친구 알아가기</li> <li>- 말로 소개한 이야기를 나와 기억에 남는 친구를 일기 형식으로 쓰기</li> </ul> </li> </ul>
2	<p>어처구니 이야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각 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 궁궐과 궁궐 물건의 쓰임 알기</li> <li>- 손 없는 날의 의미와 조상들의 해학을 이해하기</li> </ul> </li> <li>• 문해력 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림책을 대본화하여 낭독극하며 실감 나게 읽기</li> <li>- 주제 관련 곤용표현 및 속담으로 언어확장</li> <li>- 새로 알게된 사실을 설명형식으로 쓰기</li> </ul> </li> </ul>
3	<p>세종대왕을 찾아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각 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시대 궁궐과 거리를 따라가며 세종대왕 찾기를 하며 세종대왕이 어떤 성격의 인물일지 생각해 보기</li> </ul> </li> <li>• 문해력 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시대 궁궐과 전통관련 관용어 및 속담 이용하여 언어 확장</li> <li>- 확장된 어휘 메모리 게임으로 익히기</li> <li>- 내가 조선시대로 가는 상상글 쓰기</li> </ul> </li> </ul>



회차	주제도서	활동 내용
4	<p>내친구 ㅇㅅ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각 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마음 ㅇㅅㅎ 함께 읽기</li> <li>- 초성으로 표현된 글을 알아 맞추며 읽기</li> <li>- 새로운 곳으로 이사갔을 때의 기분을 알아보기</li> </ul> </li> <li>• 문해력 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ㅇ ㅅ을 듣고 퀴즈 맞추기</li> <li>- 국어사전을 활용하여 ㅇ으로 시작하는 단어 찾아보기</li> <li>- 기분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감정 단어를 단어와 표정을 그려보기</li> </ul> </li> </ul>
5	<p>어떤 느낌일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각 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에 대한 경험 및 생각 나누기</li> <li>- 그림책 속 친구들 상황을 체험해 보고 장애 이해하기</li> </ul> </li> <li>• 문해력 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관련 단어, 관용어 및 속담을 이용하여 언어 확장</li> <li>- 확장된 언어를 이용하여 그림책을 읽고 느낀점 구체적 편지글로 표현하기</li> </ul> </li> </ul>
6	<p>선아의 기분은 룽속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각 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동시를 통해 친구들의 마음 이해하기</li> <li>- 동시 제목 맞추기</li> </ul> </li> <li>• 문해력 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좋아하는 동시 암송하고 발표하기</li> <li>- 직접 동시 쓰고 발표하기</li> <li>- 노래로 표현된 시 노래 따라 하고 익히기</li> </ul> </li> </ul>
7	<p>멸치 다듬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각 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멸치 및 우리 맛있는 식탁을 위한 부모님 돕기 이야기 나누기</li> <li>- 멸치 다듬기 및 멸치와 관련된 이야기 나누고 제목으로 5행시 짓기</li> </ul> </li> <li>• 문해력 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림속 신문에 실린 신문용어 살펴보기</li> <li>- 멸치따라 바닷속 여행 후 생선 및 먹거리 관련 관용표현, 속담 알기</li> <li>- 실제 신문기사 읽고 이해해보기</li> </ul> </li> </ul>

회차	주제도서	활동 내용
8	<p>이해의 선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각 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서카드를 통해 내용 및 주제 파악하기</li> <li>- 배려의 경험 나누고 배려하는 마음 이해하기</li> </ul> </li> <li>• 문해력 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래픽조직자를 활용한 소설의 짜임알기</li> <li>- 이야기를 소설적 특징으로 분석하며 깊이 읽기</li> <li>- 관련 관용표현 및 속담 찾아보기</li> </ul> </li> </ul>
9	<p>슈퍼 거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각 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읽기전 그림책의 한 장면을 두 문장으로 써보기</li> <li>- 독서카드를 통해 내용 및 주제 파악하기</li> <li>- 느낌나누기</li> </ul> </li> <li>• 문해력 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슈퍼거북 상황을 기본문장으로 써보고, 그 상황에 맞는 속담 및 관용표현을 찾아보기</li> <li>-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등을 이야기 나누고, 나다운 나를 다양한 문장으로 표현하며 다짐글 쓰기</li> </ul> </li> </ul>
10	<p>서로에게 들려주는 따뜻한 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동안 새로 배운 표현 &lt;몸으로 말해요&gt; 게임</li> <li>• 사후 진단 및 평가</li> <li>• 마무리 책으로 &lt;따뜻한 말&gt; 낭독</li> </ul>





■ 담당 사서 후기

**문해력 프로그램, 성장과 변화의 여정**

전연미(부평기적의도서관 사서)

**문해력이 뜨고 있다**

요즘 문해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많은 곳에서 문해력 관련 프로그램과 강의를 생겨나고 있다. 왜 갑자기 문해력이 이슈화되고 있는 걸까? 최근 몇 년 동안 코로나를 경험하며 유행하게 된 유튜브와 틱톡의 짧은 영상, 숏폼, 쇼츠들을 시청하면서 점점 주의력이 짧아지고 상대적으로 길이가 긴 매체에 대해서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긴 영상은 넘겨버리는 상황이니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책에는 손이 더 안 간다. 호흡을 가다듬고 주의를 집중해 읽어 내려가야 하는 긴 글을 마주하면 두려움과 지루함이 앞선다.

**문해력 수업 어떻게 진행할까?**

이번 문해력 증진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아이들이 주제 도서를 모두 끝까지 읽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담을 갖지 않고 수업 시간 안에 함께 읽을 수 있는 그림책 위주의 책들을 주제 도서로 선정하였다. 다양한 주제와 형식의 책들을 골라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하고 아이들이 독서 노트를 활용하면서 독서와 글쓰기를 병행하였다.

첫 시간과 마지막 시간에 평가를 위해 EBS 문해력 등급평가(초4)를 선정하여 진행하고 일기 쓰기, 낭독극, 관용어와 속담, 사전 찾아보기, 점자 배우기, 시, 소설, 신문 등을 활용하였다. 그림책의 등장인물을 한 명씩 정해서 낭독극처럼 읽어보면서 등장인물의 마음이 어떤지 알아보기도 하고, 책을 읽고 배려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점자를 배우고 점판에 직접 점자를 찍어보는 실습도 해보았다.

처음 해보는 점자 쓰기가 힘들기도 하고 어려웠지만, 아이들에게 배려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독서 노트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모르는 친구들도 선생님이 제시해 준 간단한 질문에 답을 하면서 책의 내용을 상이할 수 있었다. 책 외에도 다양한 활동지를 활용해서 책을 좀 더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 들어봐요.**

아이들과 수업하면서 가장 놀랐던 것은 생각보다 관용표현이나 속담을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들어왔던 말들을 아이들은 처음 들어보는 경우가 많았다. 이해할 때 문자 그대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어깨가 무겁다'라는 말의 뜻이 '책임감이 막중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피곤해서 어깨가 꿈이 올라가 있는 듯 아프

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았다. 요즘은 관용표현이나 속담 대신 디지털 언어의 발달로 줄임말과 신조어를 주로 사용한다. 그런 친구들이니 관용표현과 속담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 이해는 가지만, 다양한 표현 대신 제한된 표현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안타깝기도 하였다.

그래도 강사님께서 주제 도서 외 추가로 도움이 될 만한 도서를 아이들에게 선물해 주셔서 관용어 표현도 함께 공부할 수 있었다. 속담과 관용표현을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지, 또 해당 표현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관용표현을 넣어서 짧은 글짓기도 해보았다. 마지막 시간에는 관용표현 낱말 맞추기와 스피드 퀴즈 등을 진행하였다. 아이들도 처음에는 생소해하였지만 반복해서 사용하다 보니 금방 친숙해진 것을 볼 수 있었다.

### 문해력 수업의 아쉬운 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몇몇 아쉬운 점을 발견했다. 코로나 당시 마스크를 쓰고 입학한, 상대적으로 문해력이 떨어지는 4~5학년을 대상으로 했다. 학생들 간 문해력의 현저한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아이들의 수준 차이가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문해력 수준이 비교적 높은 아이들 중 수업의 난이도에 만족하지 못한 중도 취소자도 발생하였다. 학생들 간의 문해력 차이를 고려한, 더 세심하고 개별화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10주간의 문해력 수업에 꾸준히 참여하고 함께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사후평가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프로그램 중간에 퀴즈 맞히기에도 적극적이고 글쓰기나 발표도 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후평가 진행 후 충격을 감출 수 없었다. 아이들 대부분이 평균 점수가 전보다 낮아진 것이다! 문해력 평가를 위해 구입한 두 회차의 시험지 난이도가 상이하여 사전평가보다 사후평가 점수가 하락하는 결과를 보였다. 추후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이 진행될 경우 난이도가 비슷한 문제지를 제공하여 진행한다면 문해력 향상 여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또한 문해력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기관에 공통된 문제지를 제공한다면 참가자들의 문해력 향상 여부 측정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10번의 수업만으로 아이들의 문해력이 단번에 향상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아이들이 관용표현을 이해하고 다양한 형식의 글을 익혀보고, 글쓰기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을 끝내고 나니 기획자로서의 아쉬움은 남았지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안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하고, 글쓰기에 부끄러워하면서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고,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성장하는 모습이 담당자와 강사, 참여자 모두에게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얻은 가장 큰 감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 5. 여주기적의도서관



- **사업명** 능서초등학교와 함께하는 기적의도서관 문해력 증진 프로그램 <복적복적>
- **참여자 학년 및 인원** 총 18명(3학년 13명, 4학년 5명)
- **참여자 모집 방법** • 학교와 연계하여 수업 시간을 활용하여 프로그램 운영하며 도서관 수업도 병행함

### ■ 사업 내용

회차	주제도서	활동 내용
1	두근 두근 (이석구 저/ 고래이야기)  사랑 사랑 사랑 (맥 바넷 글 / 웅진주니어)	문해력 평가에 대한 설명 5분 3, 4학년 문해력 진단평가 20분 실시  • 3학년 : 두근두근 그림책 낭독 • 4학년 : 사랑 사랑 사랑 그림책 낭독
2	두근 두근 (이석구 저/ 고래이야기)  사랑 사랑 사랑 (맥 바넷 글 / 웅진주니어)  신비하고 아름다운 우주 (캐서린 바, 스티브 윌리엄스 글 / 노란돼지)	• 3학년 : 책에서 나오는 의성, 의태어 분류 나눔 어휘로 문장 만들기 • 4학년 : 책 속 어휘를 분류해서 만트라 양식에 어휘 쓰기
3	슈퍼 거북 (유설화 글그림 / 책읽는곰)  말이 씨가 되는 덩더쿵 마을 (윤여림 글 / 천개의바람)	• 3학년 : 장면에 어울리는 속담 찾고 속뜻 알아보기 • 4학년 : 관용어구와 속담 짝 맞추기 게임 후 뜻 알아보기
4	가방 들어주는 아이 (고정욱 글 / 사계절)  간장 공장 공장장 (한세미 글 / 꿈터)	• 3학년 : 작가 소개 후 분량을 천천히 낭독 등장인물 관계 알아보기 • 4학년 : 어려운 발음을 함께 읽고 실감나게 글을 낭독하는 법 알아보기

회차	주제도서	활동 내용
5	가방 들어주는 아이 (고정욱 글 / 사계절)  화요일의 두꺼비 (러셀 에릭슨 글 / 사계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학년 : 분량을 함께 낭독 후 사건 순서에 따라 나열하고 주인공의 감정지도 그리기</li> <li>4학년 : 주인공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문장을 찾아보고 나의 경험 이야기하기</li> </ul>
6	가방 들어주는 아이 (고정욱 글 / 사계절)  화요일의 두꺼비 (러셀 에릭슨 글 / 사계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학년 : 분량을 함께 낭독 후 드라마로 각색된 장면 시청하고 소감 나누기</li> <li>4학년 : 분량을 함께 낭독 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 나열하고 발단-전개-절정-위기-결말에 대한 소설의 구조 알아보기</li> </ul>
7	가방 들어주는 아이 (고정욱 글 / 사계절)  화요일의 두꺼비 (러셀 에릭슨 글 / 사계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학년 : 분량 낭독 후 줄거리 정리와 소감 글감을 모은 후 독후감 쓰기</li> <li>4학년 : 분량 읽고 줄거리 정리와 소감 글감을 모은 후 독후감 쓰기</li> </ul>
8	한밤 중 달빛 식당 (이분희 글 / 비룡소)  도토리 사용설명서 (공진하 글 / 한겨레아이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학년 : 분량 낭독 후 등장인물의 감정에 대해 알아보고 다른 결말 상상하기</li> <li>4학년 : 장애감수성에 관해 알아보고 책 읽기</li> </ul>
9	한밤 중 달빛 식당 (이분희 글 / 비룡소)  도토리 사용설명서 (공진하 글 / 한겨레아이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학년 : 분량 낭독 후 내가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보기 느낌 단어로 표현하기</li> <li>4학년 : 분량을 읽고 장애와 비장애에 대해 생각해보고 공감하는 글쓰기</li> </ul>
10	-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지문 이해하는 것을 간단히 설명. 그 후 진단평가 하고 도서관에서 자율독서

## ■ 평가

### 잘된 점

- 초등 중학년 대상이라서 다채로운 문해력 향상 기법을 시도해볼 수 있었고 긴 글을 함께 읽어 넘으로써 독서에 대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음
- 또한 학년별로 나눠서 수업함으로써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할 수 있었음

### 아쉬운 점

- 일 대 다수의 수업이라 아이들의 편차에 따라 개별로 모두 다루지 못한 점이 아쉬웠음
- 수업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지만 평가를 아예 거부하는 아이도 있어 현재의 문해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안타까움이 있었음

### 건의사항

- 아이들에 따라 문해력 편차가 커서 읽고 쓰기에 기초적 어려움을 보이는 아이들에게 좀 더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음



## 여주기적의도서관과 함께 능서초를 찾다

\_곽혜린

책 읽기 딱 좋은 가을날, 너무나 아름다운 학교를 찾았습니다. 바로 여주 기적의 도서관 바로 옆 능서초등학교란 곳입니다. 문해력 향상을 주제로 3~4학년 학생들과 독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3학년은 인원이 15명 남짓 되었고 4학년은 5명인 규모가 작은 학교입니다. 처음 수업을 들어가던 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던 학생들의 얼굴 하나하나가 떠오릅니다.

첫 시간과 끝 시간은 EBS에서 제공하는 문해력 진단 테스트를 사용하여 아이들의 문해력 수준을 파악하기로 하였습니다. 비문학 위주의 긴 지문들이라 아이들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학생들이 성실히 테스트에 임하려고 노력하였고 특히 지문을 끝까지 읽어보려 했던 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엔 학생들의 읽기 수준을 잘 몰랐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은 그림책으로 시작하였습니다. 3학년 수업은 그림책으로 어휘력, 감각적 표현, 관용표현을 익히려고 했습니다. 4학년은 3학년과 같은 과정에 읽기 유창성을 키우는 수업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3학년 어휘의 경우 오감 표현을 알아보고 활용하여 글을 써보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4학년은 책에 나오는 단어들로 만다라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특히 어휘 메모리 카드를 만들어 조별로 진행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휘를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휘를 사용하여 문장을 말해보는 훈련을 하니 언어와 문장이 훨씬 풍성해짐을 느꼈습니다.

감각적 표현을 해보는 수업에서는 감각과 오감의 관계를 알고 오감을 이용한 시를 써보았습니다. 3학년은 좋아하는 빵에 대한 시를, 4학년은 사랑에 대한 시를 써보게 했습니다. 3학년 아이들은 확실히 표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반해 4학년 아이들은 정제된 표현을 많이 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사랑이라는 주제가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글로 표현할 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지만 많은 예시를 보여주며 시를 쓰는 것을 독려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진지함을 보이며 시 쓰기에 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 4학년 모두 관용표현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속담을 잘 알지 못해 속담으로 관용표현을 배워보았습니다. 엉뚱 퀴즈로 준비하여 정답이든 오답이든 신나게 말해보게 하였습니다. 문해력에 있어 가장 티가 나는 부분이 관용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용표현은 무조건 뜻부터 알려주기보다 뜻을 예상하는 방식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관용표현에 등장하는 단어들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예측하는 방식은 흥미를 끌면서 나중에 진짜 뜻을 알았을 때 무릎을 탁 치게 하는 효과가 있지요. 이번에도

그런 방식을 사용하여 관용표현에 대해 배워봤는데 아이들과 가르치는 선생님 모두 우스운 상황이 많이 연출되었습니다. 책으로 수업을 할 때 엄숙한 분위기로 정답과 오답을 가르치기보다 아이들이 스스로 시도하고 실수도 해보고 틀려도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해력은 처음부터 정답처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독서심리학이라는 책에서는 독서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대화처럼 중요한 게 없다고 하였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대화를 많이 하는 환경에 노출될수록 아이들의 독서력이 올라간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4학년과 함께 한 읽기 유창성 수업은 간장 공장 공장장 같은 어려운 발음이 많이 나오는 책을 선정하여 읽는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려운 낱 발음이 많이 나오는 문장에 도전해보려 하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실수를 해도 웃을 수 있는 경험은 책을 소리내어 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자 하는 시도였습니다.

중·후반 수업은 초등 중학년 수준에 맞추어 동화책 2권씩을 선정하여 수업을 했습니다. 3학년은 고정욱 작가의 가방 들어주는 아이와 이분희 작가의 한밤중 달빛 식당을 선정하였고 4학년은 러셀 에릭슨의 화요일의 두꺼비와 공진하 작가의 도토리 사용설명서를 읽었습니다.

동화책 수업은 돌아가면서 한 쪽씩 읽었습니다. 소리 내어 읽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소리 내어 읽는 이유를 먼저 설명했습니다. 눈으로 책을 보고 소리를 내어 귀로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책을 2번 읽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해주시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고맙습니다.

각 동화책을 읽고 주제에 맞는 활동지를 작성하고 시청각 자료가 있는 경우 이용하였습니다. 스토리가 재미있고 공감대를 불러일으켜서 아이들이 다음 내용을 무척 궁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고정욱 작가의 상반신만 보여주다가 마지막 하반신을 보여주며 장애인 작가라는 사실을 알려주시 놀라워하였고 동화의 인물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동화 수업 후반은 전반적 내용을 파악하고 나의 느낌을 말하고 요약하여 독후감을 쓰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나는 000 책을 읽었습니다. 참 재미있었습니다.” 와 같이 간단하게 쓰던 독후감에 나의 느낌을 추가하는 방법, 비평적 사고를 추가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2~3줄 쓰던 독후감이 5줄에서 10줄까지 늘어나는 것을 보자 신기해하였습니다.

마지막 날 다시 문해력 평가를 하는 날. 평가 전 잠시 문단을 위주로 지문 읽는 법을 알려주었고 평가가 끝나고 전반적으로 점수가 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문해력 평가로 독서에 대한 애정까지 다 평가할 순 없겠지요. 그래도 10차시의 수업으로 인

해 책의 즐거움을 충분히 느끼고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쉬웠던 점은 국어를 배우기가 힘든 원초적 어려움을 가진 친구들에 대한 접근이었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 아이들, 그리고 발달이 조금 느린 아이들에 대한 전폭적인 개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특수한 환경과 발달적 이슈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눈높이 독서 교육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이 남들보다 국어에 대한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책에 대한 관심까지 없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끝으로 문해력 향상을 위한 수업을 진행하며 느낀 점은 학급 내 진행하는 방식이 아주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럿이서 같은 책을 읽으면 함께 공감하고 공감대를 가지고 이야기의 장이 열리게 됩니다. 문해력은 책 속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내가 처해있는 환경 등이 끝없이 상호작용하며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온책 읽기, 슬로우 리딩 등 학교에서 같은 학급 아이들과 재미있고 좋은 작품을 지속적으로 읽고 대화한다면 아이들의 문해력은 단단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 6. 진해기적의도서관

■ 사업명 교원그룹과 함께하는 기적의도서관 문해력 증진 프로그램

■ 참여자 학년 및 인원 1-6학년 9명

■ 참여자 모집 방법 • 희망의 집 아동 중 문해력이 필요한 초등학교 대상

■ 사업 내용

회차	주제도서	활동 내용
1	<p>숲 속 재봉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꽃잎 모으기</li> <li>2. 꽃잎 드레스 만들기</li> <li>3.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리기</li> </ol>
2	<p>참을성 없는 애벌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애벌레 만들기</li> <li>2. 알 - 애벌레 - 번데기 - 나비 놀이</li> <li>3. 애벌레를 위해 하고 싶은 것 쓰기</li> </ol>
3	<p>기쁨 할머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쁨 꽃다발을 만든다</li> <li>2. 풍선을 불면서 기쁨 감정을 나눈다</li> <li>3. 다양한 감정 표현을 해본다</li> </ol>

회차	주제도서	활동 내용
4	<p>커다란 구름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구름 관찰하기</li> <li>2. 구름 일기쓰기</li> <li>3. 구름 만들기</li> </ol>
5	<p>용기를 내 비닐장갑</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비닐장갑 스퀴시 만들기</li> <li>2. 비닐장갑으로 가위 바위 보 놀이</li> <li>3. 비닐장갑에게 용기를 주는 말 쓰기</li> </ol>
6	<p>강아지 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찰흙을 이용하여 강아지똥 만들기</li> <li>2. '민들레꽃이 피었습니다' 놀이</li> <li>3. 강아지똥 주인공들로 인형극 만들기</li> </ol>
7	<p>나 꽃으로 태어났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색깔 종이별로 꽃 찾아오기</li> <li>2. 자연에서 꽃 찾아보기</li> <li>3. 줍김하여 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기</li> </ol>

회차	주제도서	활동 내용
8	<p>우리 곧 사라져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멸종 위기 바다 동물 알아보기</li> <li>2. 멸종 위기 바다 동물책 만들기</li> <li>3. 환경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알아보기</li> </ol>
9	<p>문장 부호</p> 	<p>플꽃으로 문장부호 찾아보기</p> <p>색종이로 나비와 제비꽃 만들기</p> <p>문장 부호 익히기</p>
10	<p>모두의 태극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태극기 의미 알아보기</li> <li>2. 태극기 노래 부르기</li> <li>3. 태극기 만들기</li> <li>4. 수료식</li> </ol>



## ■ 평가

### 잘된 점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찾아가는 문해력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 큰 의미가 있고 아이들이 책에 관심을 가지고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면서 도서관 문화에 가까워지는 기회를 제공한 것에 대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아쉬운 점

수업이 10회로 마무리 되어 단발성의 끝나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속되어 아이들의 문해력 증진에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건의사항

연계성 있게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습니다.



## ■ 강사 후기

### 단풍잎처럼 반짝이는 아이들과 북적북적

\_김미라(진해기적의도서관 자원활동가)

뜨겁고 뜨거운 가을이었습니다. '희망의집' 입소 아이들과 북적북적 문해력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저는 아이들보다 제가 더 아이들에게 물들어 갔습니다. 먼저, 운동주 시인처럼 아이들의 한 명 한 명을 떠올려 봅니다. 은0, 지0, 찬0, 현0, 선0, 태0, 수0, 준0, 가0. 이렇게 9명의 아이들과 '북적북적'을 시작하였습니다(너희들 모두 단풍잎보다 사랑스럽고 꽃보다 더 예뻐한다).

프로그램 주강사로서 아이들을 어떻게 만나서 책을 읽어주고, 문해력을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을까? 수업 전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이름 옆에 비고란을 보는 순간, 저의 고민의 방향인 문해력이란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저는 그 비고란을 덮고,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호흡을 맞추리라 결심하고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장 큰 산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집중력이 너무나, 또래 아이들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손 유희를 통해서 집중력을 최대한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구호를 정했습니다. 북적하면 북적북적!, 북적북적하면 북적! 아주 간단한 구호였기에 아이들은 함께 동작하며 마음을 모아 주었습니다. 손동작 유희도 처음엔 잘하지 못하던 아이들이 반복하여 했더니 마지막 차시에는 모든 아이들이 틀리지 않고 할 수 있게 되어서 역시 반복은 힘이 세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문해력 증진을 위해 '듣기 - 읽기 - 말하기 - 쓰기'의 순으로 활동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날 지정된 그림책을 박선려 강사님이 아주 재미있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읽어주셨습니다. 그림책을 다 읽고 나면 아이들이 한 페이지씩 돌아가면서 소리 내어 읽는 것부터 했습니다. 아직 읽기를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옆에서 한 글자 한 글자 짚어가면서 함께 읽어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책과 관련한 발문을 통해 말하기를 합니다. 이때부터 아이들은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서 서로 먼저 말을 하고 싶어 하여 욕심각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은 서로의 말을 통하여 성장하고 문해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느긋하고 느슨하게 기다렸습니다.

다음 쓰기를 했습니다. 쓰기 역시 글을 잘 쓰는 아이들도 있었고, 못 쓰는 아이들도 있었기에 시간이 걸리는 활동이었습니다. 잘 쓰는 아이들은 후다닥 쓰고 놀고 싶어 했고, 못 쓰는 아이들은 천천히 옆에서 함께 써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쓰기까지 마치고, 책과 관련한 활동을 곁들였습니다. <강아지 똥>을 읽고 찰흙으로 강아지 똥 만들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손으로 빚어서 조형물을 만드는 솜씨가 뛰어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숲속 재봉사〉를 읽고 희망의집 앞뜰로 나가서 꽃과 풀을 찾아서 꾸미기 활동도 하고, 〈우리 곧 사라져요〉를 읽고 사라져가는 바다 생명을 위한 책 만들기를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진지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모습은 참 기특하고 몽클했습니다.

하지만 학년이 다르고, 저마다 비고(경계성 등)가 있는 아이들이라서 편차가 심했습니다. 빨리 후다닥 해버리는 아이들, 기다림이 조금 힘든 아이들, 글은 못 쓰지만 정성껏 꼼꼼하게 활동하는 아이들, 9인 9색의 아이들과 씨름을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공통적으로 아이들이 가장 집중하는 시간은 역시 간식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는 저도 한숨 돌리고 있었지만, 함께 해주신 보조강사님은 여전히 아이들을 챙기신다고, 물 한 모금 못 드신 것 같아서 너무나무 수고하셨고, 감사했습니다.

아이들이 또 좋아했던 활동은 진해기적의도서관에 직접 방문하여 책을 읽고 도서관 옥상에서 구름을 관찰하고 별령 누워도 보며 견학을 했던 것, 그리고 이이효재 생명숲길을 걸으며 이이효재 선생님에 대해 알아보고 숲체험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런 경험을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많은 기회를 주면 좋겠습니다.

처음 프로그램에 계획했던 사항 중에 문해력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국어시험지 같은 문해력 등급 평가를 치르면서, 과연 아이들이 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일단 독려와 격려를 아낌없이 쏟으며 실시하였습니다. 첫 평가 결과는 8명 평균은(1명은 결석), 35점이었습니다. 2차시 평가 결과는 50점입니다. 단 10차시 수업 결과가 15점 차이이니 생각보다 큰 결과로 나타나지 않아서 아쉬운 마음이었지만, 9명 중 5명은 평가 점수가 올라간 것에 큰 의미를 둡니다. 아이들 중 한 명은 89점이 나와서 더욱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1차시 23점이었던 아이가 70점까지 올라갔습니다. 점수가 내려간 아이들 역시 그날 컨디션이 좌우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가장 큰 변화는 함께 읽고, 쓰고, 생각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잠재적인 능력을 깨닫고,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을 조율해 가는 과정을 배우는 것을 경험했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이 문해력 프로그램을 통해서 함께 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그리고 책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가치관을 새겨보는 시간을 가지며 함께 미래를 꿈꾸며 희망의 씨앗을 품을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소득이었습니다.

가끔 수업을 진행하며 아이들이 쓴 글을 보고 속으로 울컥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 그 글 속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글을 쓸 수 있었던 것도 문해력 프로그램을 통해서였기에, 아이들이 단풍잎처럼 붉고 뜨거웠던 10차시의 활동 속에서 행복하고 즐거웠기를 그래서 세상의 따뜻함을 품고, 몸도 마음도 함께 울곧게 성장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빌어봅니다.

## 복적복적한 친구들과의 책놀이

박선려(진해기적의도서관 자원활동가)

손에 아이들의 이름이 적힌 낫선 종이가 한 장 들어왔다. 이름 옆에는 학년과 아이의 특이사항이 적혀있었다. '경계성', '자폐', '지적장애' 등이었다. 평소 심리 쪽에 관심이 많았던 나에게 낫설진 않았다. 장애 전담 어린이집에서 수업을 해본 경험으로 아이들의 모습이 예상되었다. 무엇보다 난 희망원에 빛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며 교원그룹과 함께하는 기적의 도서관 문해력 증진 프로그램 '복적복적'에 기대감을 가득 안고 참여하게 되었다.

처음 아이들을 만났던 날이 떠오른다. 수업 시간보다 좀 더 일찍 도착한 난 수업할 교실로 들어가니 아이들은 컴퓨터에 시각을 빼앗기고 있었지만 낫선 이의 등장으로 관심을 가진다. 수업 시간이 되자 다른 아이들도 들어오며 맑은 눈망울에 낫설다는 느낌을 섞어 있었다. 한편으론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뭐 할 거예요?"라고 질문한다.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다.

문해력 진단 검사를 처음 할 때 글자를 못 읽는 친구들도 있었다. "왜 해야 해요?"라며 반문하는 친구들도 있다. 그냥 쪽쪽 넘기며 대충 풀어버리는 친구도 있었다. 그중에서도 1학년 친구들이 아직 글자를 읽지 못한다. 1학년을 둔 학부모의 입장이라 더 마음이 쓰였다. 이 아이가 학교에 가서 불편해질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이다. 2학기가 시작한 지도 몇 달이 지난 순간인데 글자를 읽지 못하면 모든 과정이 힘들 거라는 생각에 안쓰럽고 안타까웠다. 나만의 욕심으로 따로 이 아이들에게 글자만이라도 깨우치게 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컸다. 글자를 읽는 친구들도 그 속에 있는 뜻을 다 이해하진 못하는 눈치였다. 그렇게 처음 문해력 진단 검사를 마쳤다.

수업 시간엔 서로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수업이 시끌시끌하다. 그러다가도 책을 읽어줄 땐 모두 책 속으로 들어간다. 그 집중하는 눈빛에는 묘한 매력이 있다. 책놀이 강사를 하면서도 항상 그 순간이 너무 매력적인 것 같다. 이번 복적복적에 참석한 아이들 또한 그 매력을 나에게 충분히 느끼게 해주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난 항상 그 시간이 제일 좋았던 것 같다.

문해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시기이지만, 책이 아닌 다른 재미있는 자극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다. 중독에 빠지기도 쉬운 세상이고 그래서 더 책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 하지만 문해력 증진 프로그램으로 인해 아이들이 책과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어릴 적 책을 가까이할 수 없었다. 우리 집에 있는 책이라곤 두껍고 글밥이 엄청난 그리고 내가 알아볼 수 없는 한자까지 적혀있는 세계 명작뿐이었다. 어린아이가 읽어내

기엔 너무 어려웠던 책으로 기억한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책과 가까이할 수 없이 어른으로 자랐다. 부끄럽지만 그래서 아직도 긴 글밥의 책을 읽어내기가 힘들다. 그런 사람이 책놀이 강사를 하고 있다니 남들이 들으면 우습게 보이겠지만 나에게겐 특별한 목표가 있다.

지금의 아이들 주변에는 도서관도 많고 책들도 넘쳐난다, 내가 책을 보고자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조금의 노력으로도 읽을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책의 재미를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책의 재미를 느껴보고 알고 있는 사람은 언제라도 책을 찾기 마련이니까 내가 어린 친구들에게 재미있게 책을 읽어주고 책놀이를 하며 책이 재미 있다는 경험만 준다면 그 아이들이 언젠가는 책을 가까이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사람에게 적기가 존재한다. 책과 함께하는 것 또한 적기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어린 시절 책을 많이 접하지 못하면 어른이 되어도 책과 가까이할 수 있는 삶을 살기란 어렵다. 그러므로 어린 시절 아이들에게 책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의 즐거움을 알게 해주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프로그램이 그런 계기의 기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어느 정도 수준의 문해력은 책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한다.

10회차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 여운은 대단하다. 아직도 아이들이 보고 싶고 그립다. 함께한 순간들이 때론 힘들기도 했지만, 다시 함께 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해 본다. 진해기적의도서관과 희망원의 협약식이 이루어졌다. 내년엔 희망원 아이들이 진해기적의도서관으로 주기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10회차의 프로그램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아이들의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책임은사회문화재단과 교원그룹, 진해기적의도서관과 희망원 관계자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프로그램을 잘 진행해 주신 김미라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 7. 청주기적의도서관

■ 사업명 교원그룹과 함께하는 기적의도서관 문해력 증진 프로그램 <복적복적>

■ 참여자 학년 및 인원 초등 1~2학년 10명 <결과: 64명 (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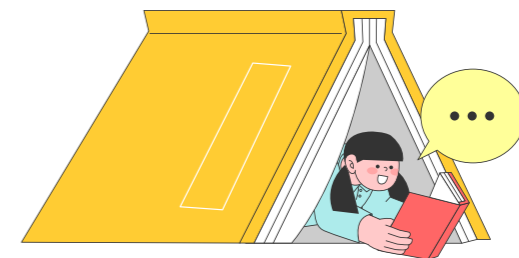
■ 참여자 모집 방법 • 홈페이지 및 독서문화플랫폼 게재, 관내 홍보물 비치  
• MOU 체결 학교와 연계 진행

### ■ 사업 내용

회차	주제도서	활동 내용
1	<p>짜짜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 진단 및 평가</li> <li>• 처음 배우는 동시(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 읽어 보기</li> <li>- 무심코 지나친 일상, 풍경, 사물 등 나열하기</li> <li>- 시적 표현으로 바꿔보기</li> </ul> </li> </ul>
2	<p>수탉 몬다의 여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음 배우는 동시(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 읽어보기</li> <li>- 의성어, 의태어에 대해 배우기</li> <li>- 사물을 의성어, 의태어로 표현해보기</li> </ul> </li> </ul>
3	<p>아무래도 수상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시 속 글 읽기(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러 동시 읽어 보기</li> <li>- 동시 읽고 느낀점 나누기</li> <li>- 패러디 동시 쓰기</li> </ul> </li> </ul>

회차	주제도서	활동 내용
4	<p>숫자벌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시 속 글 읽기(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학', '숫자'에 대한 감정 표현하기</li> <li>- 음률을 통해 리듬과 반복에 대해 배우기</li> <li>- 나만의 동시 쓰기</li> <li>- 수학, 과학적 사실을 문학적 상상력으로 표현하기</li> </ul> </li> </ul>
5	<p>우주로 날아라, 누리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 동화로 배우는 문해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화로 쉽게 천문우주에 대해 배우기</li> <li>- 누리호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정보를 통해 문해력 기르기</li> <li>- 동화를 읽고 독후활동으로 퀴즈 풀기</li> </ul> </li> </ul>
6	<p>나는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 자신 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을 빗대어 '나' 표현하기</li> <li>- '나는요' 동화 속 생략된 낱말 채우기</li> <li>- 의성어, 의태어에 대해 배우기</li> </ul> </li> </ul>
7	<p>말들이 사는 나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래로 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음이의어 '말'을 통해 표현하기</li> <li>- 나만의 '말' 만들기</li> <li>- 나만의 '말'을 통해 노래 만들기</li> </ul> </li> </ul>

회차	주제도서	활동 내용
8	<p>숨바꼭질 그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몸으로 표현하기(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음', '모음'에 대해 배우기</li> <li>- 그림을 통해 글자의 의미 배우기</li> <li>- 일상생활 속 사물과 자연 등 자음, 모음을 찾아 낱말 만들기</li> </ul> </li> </ul>
9	<p>물이 되는 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몸으로 표현하기(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이 되는 꿈' 노래 듣기</li> <li>- 노래를 듣고 느낀점 나누기</li> <li>- 가사 말의 의미 파악하기</li> <li>- 노래를 몸으로 표현하기</li> </ul> </li> </ul>
10	<p>낱말 수집가 맥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어와 낱말 찾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집하는 재미, 내가 하는 수집</li> <li>- 찾아라, 모아라 나의 낱말들</li> <li>- 수집한 낱말로 만드는 나만의 문장 만들어 노래하기</li> </ul> </li> <li>• 사후 진단 및 평가</li> </ul>



## ■ 평가

### 잘된 점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콘텐츠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좌절과 실패보다는 즐거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아이들의 문해력 향상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문해력 역량을 향상시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아쉬운 점

수업이 10회로 마무리 되어 단발성의 끝나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속되어 아이들의 문해력 증진에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강사 후기

### 미래를 여는 청주기적의도서관과 아이들

\_황은진

문해력 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맨 처음 수업을 진행하려고 했을 때 막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재미있고 유익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는 책보다는 핸드폰이 더 가깝고 친밀한 도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읽고 그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머리와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을까?

저는 저의 어릴 때 국어 수업 시간을 회상하였습니다. 책을 돌아가면서 소리 내어 읽으면 발음을 고쳐주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매 수업시간에 책을 소리 내어서 읽도록 했습니다. 평소에는 말을 잘하고 했던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는 사뭇 진지하게 소리를 내어서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가는 데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도서관에서나 집에서나 책을 눈으로만 읽지, 큰 소리를 내어서 읽는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소리를 내어서 읽게 시켰더니 아이들이 말을 하는 것과 글을 읽는 것이 다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발음을 읽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회차가 계속될 때마다 아이들이 발전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목소리의 크기에도 점점 자신감이 붙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이들에게 돌아가면서 책을 읽게 했습니다. 그 결과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자주 다른 페이지를 보던 아이들이 집중을 하면서 언제 올지 모르는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책을 소리 내어 읽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재미있는 것에는 폭 빠지게 됩니다. 반면에 재미가 없으면 금방 포기하거나 집중하지 못합니다. 저는 문해력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에게 깊은 재미를 안겨주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기억이자 추억으로 남게 하고 싶었기에 책을 읽고 독후활동을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자음을 가지고 그 자음들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찾고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너도나도 신이 나서 서로 경쟁하듯 발표하는 모습에 저도 신이 났었습니다. 또한 자신만의 낱말 카드를 만들어서 예쁘게 꾸며서 단어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낱말 카드로 스피드 낱말 맞추기 게임을 진행하였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설명할지 생각하고 또 몸짓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답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책 한 권으로 아이들은 함께 행복의 소통을 한 것입니다.

하루는 아이들이 단어들을 가지고 단어들을 짜 맞추어 문장을 만드는 활동을 하였는데 큰 도화지에 잡지책들을 오려가면서 그룹으로 문장 만들기를 했습니다. 가위질도 서투고 단어를 찾는 일, 문장을 만드는 일도 생소하고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한 문장을 만

들어 주니 아이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이 글씨 필요할까요?”, “이 그림 예쁘데 필요할까요?”라고 말이죠.

아이들은 잘 이끌어 줄 선생님 한 분만 있으면 얼마든지 무한한 가능성을 펼쳐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그저 옆에서 아이들을 도와주는 보조역할만 했을 뿐입니다. 매 수업마다 아이들이 주인공이었던 셈이죠. 최대한 아이들이 원하는 스타일로 아이들이 스스로 창작하고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연예인이나 스마트폰에서 본 것을 따라 하며 유행을 만들어 갑니다. 자신의 색깔들을 많이 잇고 살고 있고, 자신의 꿈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안타깝습니다. 아이들 수업을 진행하면서 “넌 꿈이 뭐니?” 물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자꾸 생각을 일깨우고 무언가 도전하고 창조해 내는 능력을 길러주고 싶었습니다. 작은 활동이지만 이런 창작 활동들을 자주 해나가다 보면 이제 선생님이 시켜서가 아닌 집이나 다른 곳에서도 동생들과 또 다른 친구들과 함께 책을 읽을 때마다 놀이를 통해 재미를 느끼고 책을 조금 더 빠르게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작은 소망을 더해 봅니다.

주제로 넘어가면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자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요즘 인재가 없다는 말씀들을 어른들이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책을 아이들에게 노출시켜 주고 읽게 해주고 생각을 키워 준다면 아이들을 큰 힘이 되어 국력을 키우게 될 것이며 이 아이들 중에 누군가는 제2의 한국의 노벨 문학상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내고 여러 곳에서 프로그램 진행을 해준다면 훌륭한 한강 작가 같은 작가가 많이 배출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생각을 조금 보탠다면 음악과 함께 미술과 함께 책을 가지고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보급되기를 희망합니다. 예술과 문학은 떼어낼 수 없고 동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훌륭한 창작 작품들과 창작 활동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고 아이들 눈높이에서 항상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더 멋진 순수 작품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책을 통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아이들에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어린이도서관이 생기길 기원합니다.



교원그룹과 함께하는 기적의도서관 문해력 증진 프로그램

# 북적북적

사례집

발행일 2024년 12월

발행처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3길 40, 2층  
02-3675-8783

주 최 책읽는사회문화재단, 기적의도서관전국협의회

주 관 구로기적의도서관, 김해기적의도서관, 도봉기적의도서관, 부평기적의도서관  
여주기적의도서관, 진해기적의도서관, 청주기적의도서관

후 원 교원그룹

